

## 다카야마시 평화도시 선언

2017년 3월 24일  
선언

다카야마시는 히다 산맥으로 대표되는 풍요로운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며, 일본의 전통축제와 장인의 기술 등 전통문화를 키워가고 있는 “국제관광도시”로서 주변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의 날을 “다카야마시 평화의 날”로 제정하여 히다 다카야마에서 세계를 향해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는 분쟁 · 테러 · 기아가 끊이지 않고 핵무기의 위협에 노출되어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꼭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또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과거로부터 배운 전쟁과 핵무기의 비참함,  
어리석음, 두려움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해 가겠습니다.

우리들은 풍요로운 자연환경,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지켜 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실천을  
소중히 해 가겠습니다.

우리 다카야마 시민은 다카야마시가 영구히 평화도시임을 여기에 선언합니다.